

보도시점 2025. 8. 22.(금) 11:00 배포 2025. 8. 22.(금) 08:00

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

-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방안,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과의 소통 강화
- '25년 신규사업 발굴목표를 18.7 → 19.7조원으로 1조원 확대하고, 현장 기반의 제도개선 과제를 「민간투자 활성화 대책」에 반영(4분기 발표)

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민간투자학회,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< 민간투자사업 간담회 개요 >

- ▶ (일시) (1차, 환경·산림분야) '25.8.7.(목) 14:00~16:00
(2차, 에너지분야) '25.8.22.(금) 10:30~12:00
- ▶ (참석자)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(주재), 민간투자학회, 건설사, 협회, 유관기관 등

최근 디지털 전환, 기후변화, 신산업 발달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신유형 민자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, 기획재정부는 '신규사업 발굴*방안', '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' 등을 논의하는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.

* '25년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목표 : (당초) 18.7 → (수정) 19.7조원(+1조원 수준)

1차 간담회(8.7일, 환경·산림분야)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·하천 정비사업, 저류시설, 노후관로 개량 등 다양한 신사업(안)이 제안되었으며, 2차 간담회(8.22일, 에너지분야)에서는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·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민간투자자로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.

안상열 재정관리관은 “정부는 민간투자 신사업(안) 발굴과 동시에 민간 사업자·주무관청이 사업구조를 쉽게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다.”라고 밝혔다. 또한 “현장에서 제기된 애로·건의사항은 제도개선 과제로 구체화하여 4분기 「민간투자 활성화 대책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.”라고 밝혔다.

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·생활SOC 등 신사업수요가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(월 1회)하여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신대원	(044-215-54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재홍	(jwpark1202@korea.kr)

